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아주 더워

제목 : 포레팅.

오늘 승면이, 수면이, 지나, 아리, 유건민이, 나 이렇게 포레팅 수업을 하러 선유도 공원에 갔다. 원래 수업 시간이 2시인데, 애들이랑 같이 12시쯤에 먼저 선유도공원에서 놀았다. 김밥이랑 김치찌개를 먹었다. 어제도 월드컵 공원까지 텐트 안에서 김치찌개 먹었는데, 오늘도 또 먹으니까 언제 질리지안, 그래도 난 여전히 라면이 좋다. 밥을 다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놀았다. 워터반 던지기를 했다. 서로 눈썹교환을 해 가면서 해야 워터반을 잘 날릴 수 있다. 근데 애들이 다 나한테는 던지지 않아서 재미가 없었다. 그래서 다른 걸 했다. 한발 뛰기를 했다. 나는 다리짚기 잘해서 다리짚기로 할려고했는데, 다리짚기는 없다 그래서 그냥 뛰었다. 만약에 솔레가 우리를 잡지 못하면 때 쉰까지 들이 가야하는데 멀리 뛰었을때는 들이끼 힘들다. 놀다가 이젠서 수업 시간이 다 되어서 수업을 했다. 오늘은 야외수업이라서 개미가 너무 많아서 싫었다. 오늘은 수생박물관에 대하여 배웠다. 수생박물관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부유식물, 정수 식물, 부엽식물, 침수식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알았다. 오늘은 수업을 하기 전에 놀아서 그런지 편지 수업하는 동안도 정신이 산만했다.